

중국발전고위급포럼 2024년 년례회의 개최

중외 귀빈, 중국 발전의 새 기회 함께 논의



귀빈의 발언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신화넷

3월 24일, 중국발전고위급포럼 2024년 년례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2일간 지속된 이번 년례회의는 '지속 발전하는 중국'을 주제로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가 주최했다. 회의의 기간 주요 국제기구, 세계 500대 기업의 책임자, 다수 국제 저명한

학자들이 중국의 지속 발전 등 여러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교류하였다. 포럼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중국의 지속 발전하는 에너지와 전망, 탄소 중립 및 글로벌 기후 관리, 인공지능 개발 및 관리, 신형 소비 및 내수 잠재력 발굴 등 8가지 주요 주제에 대

해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에는 장비제조, 금융보험, 첨단기술 및 반도체, 의료 및 건강 등 다양한 산업의 다국적 기업을 망라한 110명이 넘는 해외 대표가 참석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2000년 처음 개최된 이래 23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국정부 고위층, 글로벌 상업계 지도자, 국제기구와 중외 학자간의 중요한 교류 대화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 국제방송

미국 정책은 왜 중국 제조 기증기를 '무서워'하는가?



2024년 2월 22일, 강소성 남통시에서 상해진화중공업 남통시사가 항구 기증기 제품의 조립 및 시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 시각중국

2021년 9월, 상해진화중공업이 제조한 초대형 항구 컨테이너 기증기 4대가 미국 메디랜드주 바르디모항에 도착했다. 이 4대의 기증기는 바르디모항의 처리량을 두배로 늘이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23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안전부인과 군대축의 일부 관원들은 미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기증기를 '트로이목마'(特洛伊木马)에 비유하며 기증기에 달려있는 복잡한 수감기(传感器)가 미국의 수치를 빼돌려 남몰래 중국으로 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해 향후 5년 동안 미국 모든 항구의 중국산 기증기를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항구 기증기로 교

체하여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이른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불과 2년도 안되어 미국의 밀그림이 180도로 크게 바뀐 것이다. 미국 항구의 실력을 비약시킬 수 있었던 '항구 기증기'로부터 미국 정책들이 경계하라고 웨쳐대는 '간첩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증기는 요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미국 사용자들의 기밀이 사용중에 누설되어서일가 아니면 중국산이 불만족스러웠을가? 분명 이진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최근 여러 미국 항구들은 중국산 기증기에 만족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중국산 기증기가 이른바 민감한 수치에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메디랜드항구관리

국은 바르디모항에 있는 진화중공업 기증기 4대가 조립 및 테스트 과정에서 그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기증기 간첩론'을 떠드는 미국 정책들의 속셈이 대체 무엇인지? 미국정부의 행위가 미국 국민의 절실한 리의를 대변하는지 아니면 안전부문에 랍치되었는지? '팔공산의 조목이 모두 병사처럼 보인다'고 사실 최근 몇년 동안 이와 유사한 '중국공포' 언론을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국산 지하철의 차간부터 중국산 변압기, 펌프 등 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은 미국에 들어 서면 모두 '간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졌다. 최근 미국 상원의

원은 심지어 미국 상무장관에게 중국 마늘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편지를 보냈다. 정책들의 이런 황당한 말은 사람들을 피식 웃게 한다. 미국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가? 미국 정책들은 '피해망상'의 수렁에 빠져 '이웃집이 도끼를 훔쳐갔다는 의심'이 그냥 반복하고 있다. '중국위협'을 미친 듯이 부풀려 끔찍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미국 국내의 폭등한 물가, 주변의 인종차별과 집값의 총기란사 사건을 잊어버리도록 미국인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에 있다. 또 '중국카드'로 쌓아올린 '중국 안보 위협'은 미국 국내의 모순을 풀이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을 끌어들이며 중국을 공동으로 겨냥하고 미국 및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의 판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쪽에서 중국 기증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저쪽에서는 바로 일본 미쓰이물산의 미국 자회사에 대체품 생산을 서두르라고 재촉한 것은 주판알을 아주 잘 튕긴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천번 반복해도 거짓말인 것이다. 미국은 이른바 '중국위협'을 선동하면서도 이때까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측이 공포를 조장하는 수법은 결국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말 것이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유개방을 고취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관계분리', '위험제거'를 일삼는 미국 정책들의 행보는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경제, 법치 등 이른바 미국 체제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들이 미국 정책들에 의해 박살나고 있다. 강대국간의 경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두 나라에 복지를 도모하고 세계에 혜택을 도모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중국 기증기 간첩론'과 같은 황당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 신화넷

국방부 대변인, 필리핀의 인애초 무단 침입에 대한 입장 천명

3월 23일, 인애초 린근 해역에서 필리핀의 불법 '좌초'(坐灘)한 군함에 물자를 수송하려던 필리핀 선박에 대해 중국 해경 함선은 퇴거 단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 오겸이 입장을 밝혔다. 오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3월 23일, 필리핀 함선은 중국 인애초 린근 해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좌초'한 군함에 대한 운수 보급을 시도했다. 중국 해경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필리핀 선박을 규제, 저지, 퇴거시켜 필리핀의 침해 도발 시도를 단호히 근절했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필리핀측의 도발에 의해 발생했으며 중국의 처분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며 전문적이고 규범화 된 것이었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와 그 린근 해역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은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타결할 용의가 있지만 필리핀측이 약속을 어기고 인애초의 불법 '좌초'한 군함을 영구 시설로 보강하려는 데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측이 모순을 격화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발언도 중지하고 모든 침해 도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엄정히 고한다. / 신화넷

로씨야 음악청 테로 습격의 배후는?



3월 24일, 사람들이 로씨야 모스크바 근교 테로 습격 사건 현장 부근에서 헌화하며 조난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3월 24일을 전국에도 일로 선포했다. 로씨야 곳곳에서 모스크바 근교 테로 습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 신화넷

로씨야 수도 모스크바 근교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한 음악청에서 22일 밤 테로 습격 사건이 발생해 이미 137명이 숨졌다. 현재 테로 습격의 배후 신원을 둘러싸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가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로씨야측은 범죄용의자가 우크라이나측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23일 텔레비존 연설을 발표하여 테로 습격의 죄행을 호되게 질책하며 범죄자와 지지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로씨야 언론은 이번 테로 사건에 직접 참여한 용의자 4명은 따위끼스만 국적으로 로씨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 신화넷

방글라데슈 첫 룩해 석유 저장·운송 프로젝트 운영 시작



중국 기업이 건설한 방글라데슈 최초의 해상·육상 일체화 초대형 석유 저장·운송 프로젝트.(드론 사진, 2023년 11월 10일 찍음.) / 신화넷

중국 기업이 건설한 방글라데슈 최초의 해상·육상 일체화 초대형 석유 저장·운송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상업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우대대출을, 중국수출은행이 용자를 제공했다. 중국석유천연가스도관국 공정회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젝트를 완공했다. 이는 그동안 작은 배와 큰 배를 연결해 원유를 나르던 방식을 완전히 없애고 비효율적이고 환경 불친화적 관행을 개편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10만톤급 대형 유조선의 원유 하역 운송 시간을 과거 11일에서 약 48시간으로 크게 단축해 연간 원유 운송 비용을 1억 2,800만 달러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대일로' 창의를 방글라데슈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주요 석유 가스 저장·운송 프로젝트로 방글라데슈의 에너지 부족 현상을 크게 완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대동맥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동시에 건설 과정에 현지에서 연인수로 약 4,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화넷